

광주시 공기업·기관 노조 '통상임금' 줄소송 조짐

도시철도 431명 15억 지급 소송 진행중 김대중컨벤션센터·교통약자센터도 나서 대법 "상여금=통상임금" 판결... 결과 촉각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달라는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광주시 등이 향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노조가 수백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데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맞물리면서 향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다른 공공기관·공기업 노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6일 광주지법과 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노조 431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을 제기한데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달라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지난 3일 도시철도공사와 노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에는 도시철도공사 전 직원 547명 중 비노조원 116명을 제외한 431명(78.8%)이 참여했다.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3년 동안의 상여금·대우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조정 수당·맞춤형 복지비 등 6개 항목 15억 1700만원(1인당 352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만큼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게 노조측이 소송을 낸 배경으로 전해졌다. 도시철도노조는 지난해 광주시 투

자기관련의회 논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포함된 5개 투자기관(도시철도노조·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와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50~60명)는 이미 관련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도시공사와 환경공단도 조만간 미지급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합창단·국극단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립예술단노조는 지난 2012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해 승소한 점도 다른 기관들의 릴레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 투자기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부속 예산에 대해 광주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임금체계 정비 등 보완 대책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임금명목	임금특징	해당여부 (작년 12월 18일 판결)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정기상여금)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리더십·인센티브·경영상과분배금 등)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해당안됨 /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해당안됨 / 통상임금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되는 금품(명절귀향비·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해당안됨 / 통상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재산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내겠다”

허재호 전 회장, 대국민사과... 벌금 50억원 납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현금 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4일 오후 3시 광주지검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광주시민과 전 국민에게 여러 날에 걸쳐 심려를 끼쳐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 계열사에 대한 개인 대여금 채권이 회수돼 49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면서 “저의 안식구도 담양 다이내스티 골프장 매각에 착수하고 매각 전이라도 지분 전부를 담보로 15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골프장이 매각되면 75억원 정도가 마련돼 그 전부를 내기로 하는 등 가족 모두가 합심해 나머지 금액을 이틀 시일 안에 납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시절 한 그룹을 움

직이다가 잘못돼 재산 전부인 주식과 부동산 1000억원 이상을 아무런 조건 없이 회사에 투입하다 보니 이후 공매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양도소득세와 벌금을, 개인 재산만으로는 마련할 길이 없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서 “더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벌금 납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제출한 납부 계획서에 따라 국내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빌린 자금을 마련하는 대로 남은 벌금 175억2700여만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뉴질랜드 쇼트랜드 토지 매각 대금에서 은행 부채 등을 뺀 자금(30억원) ▲허 전 회장 채권(30억원) ▲담양 골프장(90억원) 주식 매각 대금 및 뉴질랜드 아파트 매각 대금(10억원) ▲상속 재산 등으로 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벌금 완납이 이뤄질 때까지 재산추적을 계속하고 차명주식 보유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09년 대주 건설이 지금난에 허락이자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부도 직전까지 3750억원의 어음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사재를 모두 결제 대금으로 쏟아부으면서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0년대 덕산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경제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데, 허 회장은 이러한 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마지막까지 어음을 결제한 것”이라며 “그 동안은 나라 전체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활짝핀 배꽃’ 인공수분 한창

6일 나주시 금천면 한 배 농장에서 농부가 인공수분을 위해 배꽃 수술을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성추행범 잡았다

전남대 교내에서 성기를 노출한 뒤 자신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여학생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송모(26)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흉도 도서관 뒷편에서 마주오던 여학생 A씨를 보고 갑자기 지퍼를 내렸다. A씨가 놀라 도망치자, 송씨는 20~30

m 가량을 뒤쫓아가 A씨를 뒤에서 겨안는 등 성추행 했다. 송씨는 A씨가 거세게 저항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놔주지 않았다. 송씨는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야 자리를 떴다. 송씨는 8일 전에도 교내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

께 전남대 농대 인근 가로수길에서 홀로 걸어가던 B양과 마주쳤다. 그는 으레 해왔던 것처럼 B양이 보는 앞에서 지퍼를 내렸다. 송씨는 B양이 소리치자 도망갔다. 이날까지 전남대 상황실에 접수된 성추행 피해 건수는 모두 2건.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최소 5건 이상 될 것이라는 게 북부경찰의 설명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불산단서 또... 한달새 3명 추락사

영암 대불산단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한 달 새 산단 내에서 3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노동청이 벌이는 ‘특별 안전감독’ 등 예방과 사후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10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 국가산단 내 선박 부품

제조공장이던 S중공업에서 작업중이던 고모(41)씨가 16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다리차 운전 기사인 고씨는 당시 누수가 발생한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올라 점검작업을 하던 중 1mm 두께의 채광창이 깨지면서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음주단속 경찰 치고 출행량 30대 하루만에 붙잡혀

○심야시간 음주단속을 피해 유틸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에 하루 만에 검거. ○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배모(31)씨는 지난 4일 자정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침탄병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단속지점 20m 앞에서 유틸을 하다 이를 막는 권

모(45) 경위의 손을 자신의 SM7 승용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배씨의 차량 번호 2자리를 확인한 뒤 추적 끝에 다음날인 5일 광산구에 거주하는 배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배씨는 “속이 매스꺼워 차를 세우려 유틸을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 경찰을 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14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4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현상을 완화
 - 능력개발비용 지원에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역량향상
 - 사업 내용
 - 사업예산 : 60억원
 -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인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공고차수 신청사실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지원조건)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1. 「대학실업·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분야 전문분야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도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의 인제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근대차(원)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정 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
 - 교육사실일 및 종료일이 협약기간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정부지원 금액 (단위:천원)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년)	9,350	11,550	12,650
인건비	7,800	9,600	10,800
능력개발비	1,550	1,950	1,850

 - 기준연봉 : (기준급 + 월정수당 등,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제인대상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없거나, 각 차수별 신청사실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평가 방법
 - 1차 :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성성 검토
 - 2차 :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
- 평가 항목
 - 연구개발 투자율, 기술개발인력 구성비율, 기술개발 인력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4. 1(화) ~ 6. 30(월)
 - 4월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 * 마감일 18 : 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경우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
-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행사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 : 00까지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화상담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나,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 http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신청 →과제신청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신청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유의사항
 - 제외대상 기업 또는 인력이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관리지침에 명시된 각종 이행사항 위배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4. 문의처
- 사업총괄 및 수행기관, 전문기관

사업총괄	담당기관(담당부서)	연락처	문의사항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5	시행계획 공고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증개센터)	02-3460-9085 02-3460-9084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기획부) 중소기업 R&D 플랫폼	1661-1357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청(http : //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 : //www.smtech.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 : //www.koita.or.kr)
 - 이공계인력증개센터(http : //www.rndjob.or.kr)

